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 護國의 전당, 전쟁교훈의 산교육장 전쟁기념관 개관 -



용산구 옛 육군본부 자리에 들어선 전쟁 기념관은 3만5천평의 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연건평 2만 5천평 규모로 지어진 초현대식 건물로 7개 전시실과 옥외 전시장의 주전시시설, 전우회관, 간이식당, 지하주차장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사진은 전시물들을 살펴보고 있는 김영삼 대통령)

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순국선열의 위업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전쟁기념관이 지난 10일 개관식을 갖고 일반에 공개되었다.

전쟁과 역사의 교훈을 되새긴다는 취지로 지난 88년 특별 입법된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라 지난 90년 9월 착공해서 3년 7개월여 만에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 護國의 전당, 전쟁기념관에는 모두 1,010억원의 정부예산이 투자됐다.

전체면적이 6,159평인 7개 전시실은 주제에 따라 호국추모실, 전쟁역사실, 한국전쟁실, 해외파병실, 국군발전실, 대형장비실, 방산장비실과 옥외전시장 등으로 나뉘어 우리나라 군사유물과 세계 각국의 무기 장비 등 7,835점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방산장비실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순수국산무기 및 장비들을 실물 및 축소 모형물로 전시하여 고도로 발전된 방위산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 각종 전차포탄 및 박격포탄을 전시한 풍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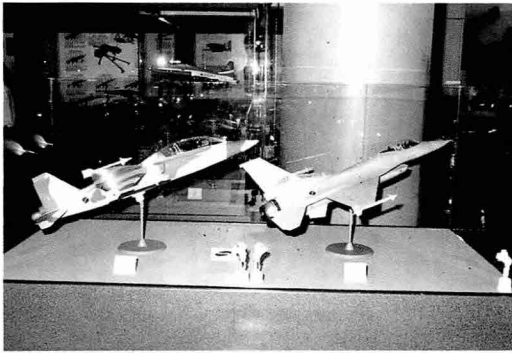
▲ 김정정밀의 한국형 지대지 유도탄(현무)의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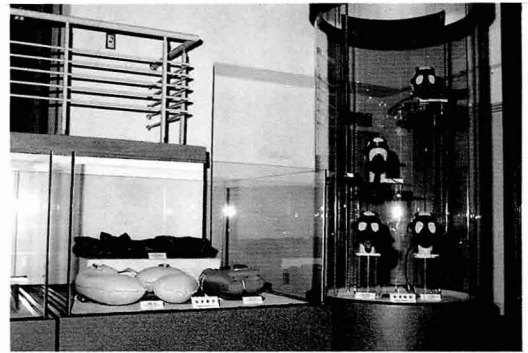
▲ 현대정공의 K-1 및 구난전차, 교량전차의 모형



▲ 각종 야시장비를 전시한 삼성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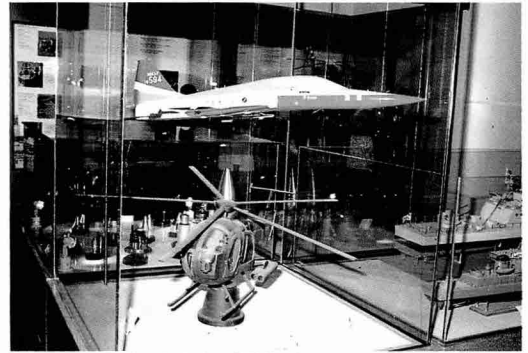
▲ 삼성항공이 전시한 KTX-2와 F-16모형



▲ 보호의, 구명대 및 각종 방독면을 전시한 삼공물산



▲ 현대전자가 전시한 전차탑재 전자장비



▲ 대한항공이 전시한 제공호와 500MD 헬기모형



▲ 한화의 항공기용 확산탄



▲ K751 폭뢰신관을 비롯한 협진정밀의 각종신관類

다가오는 21세기 항공산업 비전 조망

국제 항공우주세미나가 국내외 항공업계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얏트 호텔에서 개막되었다.

대한항공이 창립 25주년을 기념하여 16, 17일 양일에 걸쳐 「21세기의 항공산업」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金喆壽 상공자원부장관과, 趙重建 대한항공부회장, 야마지 스스무 일본항공(JAL) 회장, 로널드 우다드 보잉社사장, 존 울프 더글라스社 부사장 등 국내외 항공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21세기 항공



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해군 안보환경 전망과 해군력 발전방향 모색

- 제3회 해군 함상토론회에서 열띤 토론 벌여 -



해군이 주최한 이번 함상토론회에는 국제문제 전문가, 예비역 장성, 국회국방위 소속 국회의원, 국방부·함참·안기부·외무부의 관련정책 실무자, 대학교수 및 학생 등 많은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21세기와 한국의 해양안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날 토론회는 발표자의 주제발표에 참가자들이 질의하고 함께 토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동북아 지역의 해양안보환경』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연세대 金達中 교수는 『동아시아지역이 中·일을 비롯한 각국의 해군력 증강경쟁, 해상교통로 확보문제, 해양자원문제, 북한 핵문제 등 각국의 이해관계가 깊이 물려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해양안보 유지를 위한 각국과의 다각적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유사시 분쟁해결 및 평화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해군력의 질적·양적 향상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21세기 동아시아 해양안보 환경을 전망하고 이에 대처할 한국 해군력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제3회 해군 함상토론회가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2일의 일정으로 서해상의 해군 천지함에서 개최되었다.

姜永五 예비역 해군 제독은 『21세기의 한국 해군전략 및 전력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 해군은 이제까지의 대륙적 해군전략에서 탈피하여 해양적 해군전략으로 도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군 기동부대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첫날 서해 천지함상에서의 열띤 토론을 마친 참석자들은 다음날 서해안보의 최북단 백령도를 방문하여 긴장감이 감도는 안보현장을 견학하고, 해군 전투함정의 해상기동 및 보급훈련, 헬기 이·착함훈련 등 시범훈련도 참관하여 해군과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안보 현실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

서울엔지니어링 美 Bell社로부터 우수협력체상 수상



알루 미늄합금 주조 업체인 (주)서울엔지니어링은 94년 6월 3일 세계 최대 헬기제조회사인 벨社로부터 그 동안의 업적에 대한 평가로 우수협력 업체상(Exceptional Achievement Award)을 수여 받았다.

(주)서울엔지니어링은 92년 3월에 벨社로부터 AH-IS(COBRA) 헬기의 동력전달 부분에 쓰이는 트랜스미션 부품 등 알루미늄 합금 주조품 3종과 마그네슘 합금 주조품 2종에 대한 개발 발주를 받은 후 2년여만에 이 제품에 대한 시제품 납품과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6월부터 양산에 들어갔다.

가벼우면서도 강력한 기계적 성질을 가진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합금의 주조품은 항공

기나 유도병기의 많은 부분에 사용되고 있으나 항공기 소재용 주조품의 사양과 검사가 워낙 까다로워 이들 제품의 생산은 선진 몇 개국만으로 국한되어 있다.

(주)서울엔지니어링에서는 지난 2년동안 이 제품의 개발을 위해 특수 생산설비는 물론 각종 최신 검사장비들을 도입하였으며, 많은 기술진을 해외에 연수케 하는 한편 외국인 기술진도 초빙하여 ISO 9000에 합당하는 품질관리 체제를 구축하면서 신제품 개발에 전력을 다하였다.

항공 소재용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주조품은 제품의 특성상 갖가지 최신 주조기술을 응용하면서도 모든 공정에서 많은 사람의 노력이 소요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매우 높다.

현재 벨社에서 발주된 것은 5종, 금액으로는 12만불에 지나지 않으나 가까운 시일 내에 벨社와 새로운 종목에 대해서도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이 개발을 계기로 미국의 Lockheed社를 비롯한 몇몇의 회사로부터 상담과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주)서울엔지니어링에서는 지금 한창 논의되고 있는 국산항공기 개발에도 장차 기여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